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23.(월) 11:00
(지면) 2026. 11. 24.(화) 조간
배포 2026. 11. 23.(월) 06:00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장이 열린다

- 11월 24일 부산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산·학·연 협력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정종진)와 함께 11월 24일(화) 부산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산·학·연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과 동남아 지역의 해양플랜트 노후화로 해체·개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주요 기술 동향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산업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연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행사는 '성과발표회'와 '기술 세션', '해외시장 진출 전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성과발표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2015년부터 장비 공동 활용, 전문 인력 양성,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날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술 세션에서는 세계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해상풍력 시설 운송·설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개조 등 6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 전략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개조 사업 발주처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 국내기업과의 수출 상담의 자리를 마련하여 해외 프로젝트 참여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해외 수주 매칭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지원 플랫폼도 소개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LNG 공급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해체·개조 시장과 해상풍력 시장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인자 (051-773-5240)
		담당자	서기관	박형범 (051-773-56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행사 일정**

시간	행사장 1	행사장 2	행사장 3
09:30 ~ 10:20	현장 등록		
10:20 ~ 11:10	<기술 세션 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동향과 육성 방안	<성과발표회 Ⅰ> 서비스산업 지원 사업 성과 종합 보고회	
11:10 ~ 12:00	<기술 세션 Ⅱ> 해상풍력 운송과 설치 기술	<성과발표회 Ⅱ> 지원 사업 대표 성과 발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50	<기술 세션 Ⅲ> 해상풍력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	<해외시장 진출전략 Ⅰ> (해양대) 바이어 사업 설명①②(Soechi·GTSI)	
13:50 ~ 14:40	<기술 세션 Ⅳ> 작업자 해상 접근과 해상 작업 안전	<해외시장 진출전략 Ⅱ> (해양대) 사업 설명③(APCA)·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 소개	
14:40 ~ 15:00	휴 식		<해수부-협회 간담회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회 정기총회>
15:00 ~ 15:50	<기술 세션 Ⅴ> 해양 설비 무인 운영과 실해역 실증	<해외시장 진출전략 Ⅲ> (해양대) 1:1 비즈니스 상담	
15:50 ~ 16:40	<기술 세션 Ⅵ> 해양플랜트 해체와 개조 기술	<해외시장 진출전략 Ⅳ> (해양대) 1:1 비즈니스 상담·정리	